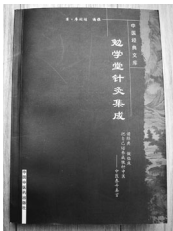


# 침뜸역사신문

발행일 1874년(고종11년)



일본·중국으로 간 침구경험방 12면  
'침구명감'과 '침구집성' 비교  
허임 침술 계승한 후예들 12면



치종의 권위자 백광현 13면  
조선명의탐구 - 조광일 13면  
돌침 중기 치료의 맥 13면



내의원 침의청 14면  
침구의술 고대사 14면  
침뜸의학과 침뜸 효능 15면

## 침구경험방, 일본으로 중국으로 ... 침뜸 '한류'

일본판 출간 “허임 침뜸이 으뜸” · 중국에선 조선 침구서적 बे껴 ‘침구집성’ 출간

허임의 침구경험방이 일본과 중국에서 간행되면서 침뜸의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725년 일본판본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바 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판본이 나와 조선 침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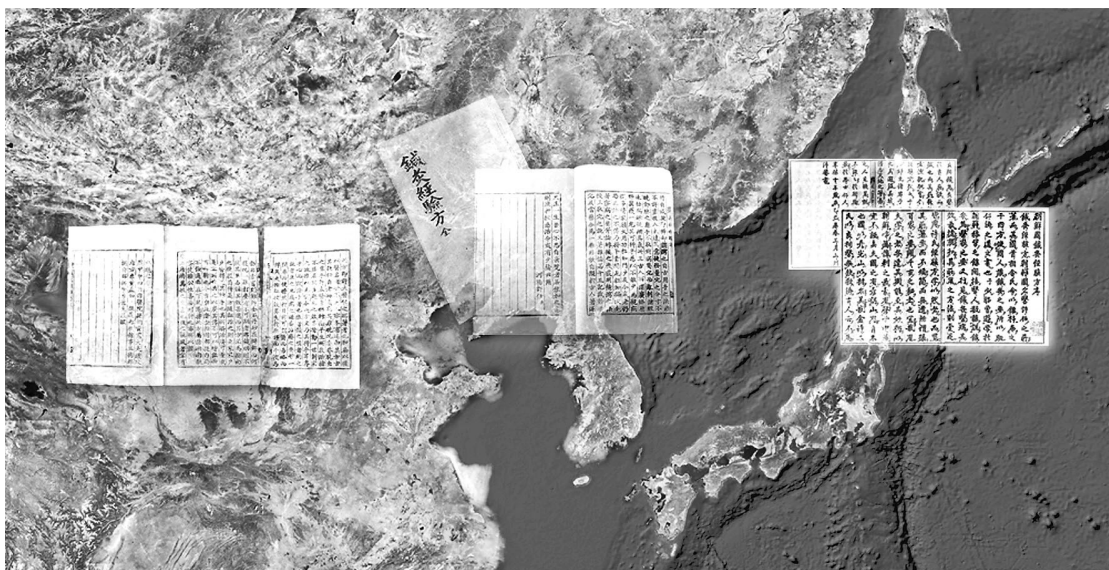
최근 중국에서도 ‘침구집성(鍼灸集成)’이란 의서가 간행되었는데 그 내용이 조선의 침구경험방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어 중국 의학에도 조선 침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판 침구경험방은 조선으로 유학 온 일본인 의사 야마가와준안(山川淳庵)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침구경험방을 가져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의사는 일본판 침구경험방 서문에서 “조선에서는 침구가 의가(醫家)의 요체였고, 그 효험이 가장 빨랐는데 치료방법은 한결 같이 모두 허씨의 경험

방을 배워서 하는 것이었다.”고 목격담을 말하고, “조선의 침술이 평소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이 정말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며 조선 침구술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778년에 다시 간행됐고, 1807년 ‘침구명감’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목판으로 인쇄되어 일본 침구의술에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됐다.

청나라에서는 1874년 라오룬홍이란 명의가 저술한 것으로 표기하여 ‘침구집성’을 간행하였는데, 허임의 침구경험방과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을 짜깁기해 표절 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조선 침뜸의 우수성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1777년(정조1년) 청나라 연경에서 사신행차의 여정을 기록한 이갑(李岬)의 연행기사(燕行記事)에 의하면 “(청나라 태의원) 침술은 더욱 좋



침구경험방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널리 쓰이며 조선침뜸의 우수성을 알렸다.

은 솜씨가 없고, 침은 우리나라 것에 비교하면 심히 무디기 때문에 침을 맞는 자가 더욱 괴로워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 보다 우리나라의 침술이 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을 중국의 의료 현장에

서 직접 목격하고 쓴 것이다.

조선의 침뜸의술은 일본은 물론 중국의 의서출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임상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리된 침구전문서인 만큼 앞으로도 조선 밖 세상에 알려져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2면〉

## 침뜸술 백성들 생활 속으로!

침구경험방, 활자본 목판본 필사본에 전해온까지 나와

침구경험방은 백성들의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다. 1644년 전주에서 첫 목판본이 나온 침구경험방은 쉽고 실용적인 침구전문의서로 백성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침구경험방은 왕실에서도 침구의 위상을 더욱 높여 1651년(효종2년)에는 내의원의 부속청으로 침의청이 따로 설치되었다.

침구경험방은 첫 판본이 나온 이후 17세기 말 활자본으로도 간

행됐고, 1725년에 다시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쉽게 필사할 수 있는 한 권 분량으로 되어 있어 필사본이 수 없이 만들어졌다.

더욱이 전해온까지 나와 아나네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침뜸의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농사법과 가정생활백과로 알려진 홍만선의 산림경제에서도 허임의 의술이 구급방으로 여러 군

데 소개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치료수단과 의학정보가 없는 백성들에게 침구경험방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이경석 전 제조가 침구경험방 발문에서 “경험방을 얻어서 증세에 따라 치료하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다”며 “이것은 마땅히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듯이 침구경험방은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널리 파고들고 있다.



침구경험방 필사본

### 명의 대명사 된 ‘허임’

허임은 명의의 대명사로 늘 화제가 되었다. 조선 최초의 소아전문의를 지은 조정준은 급유방(及幼方, 1749)에서 허임의 침구법을 전승한 최유태와 오정화를 소개하고 자신도 그 맥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또 1784년 일본에 통신사 일행으로 간 조선 의관 조소수는 “동방에 허임이 있어 침술에 능통하였고, 김중백이 그것을 이었는데 지금은 없으니 참으로 애석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은 허임 사후 100년~150년이 지난 뒤에도 허임의 침술을 잇는 이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12면〉